

자료제공: 2023. 7. 19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

방재시설부장	이동훈	02-6438-2408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방재시설과장	정현중	02-6438-2410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담당자	홍민철	02-6438-2412
-----	-----	--------------

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

지역건축안전센터장	김병철	02-2133-7090
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안전제도팀장	김태완	02-2133-6981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담당자	이희원	02-2133-6982
-----	-----	--------------

오세훈 서울시장, "부실공사와 전쟁, 민간 건설사도 영상 기록 해야"

- 오세훈 시장 특별지시로 서울시 발주 대형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'22.7월부터 시행중
- 100억 이상 모든 민간건축물 공사 전과정 매층마다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요청
- 공공에 축적된 동영상 기록관리 노하우 매뉴얼 민간에게 전수 ...민간 건설사 동참 독려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(수) 동대문구 '이문3구역'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긴급 현장 점검 시 "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에 100% 동참을 기대한다"고 밝혔다.
- "지난 '19.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, '22.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, '23.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

등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실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, 민간건설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에 건설공사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는 길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현재 민간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상 5개 층 상부슬래브만 촬영하고 있으나, 모든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을 포함한 매층마다 공사 전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'22.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(안)을 건의하였으며 법령개정전이라도 선제적으로 100억 이상 민간건축물로 확대한다.
- 한편,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.
- 서울시는 '22.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. 지난 1년간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에게 전수하기로 했다.
 - 동영상 매뉴얼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촬영 절차, 기준, 콘티 등이 있으며,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, 장비,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담고 있다.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건설현장의 부실공사와 전면전을 치룬다는 각오로 임하겠다.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고,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생명도, 재산도 지킬 수 있다. 민간 건설사도 영상기록 관리에 모두 동참해달라”고 말했다.